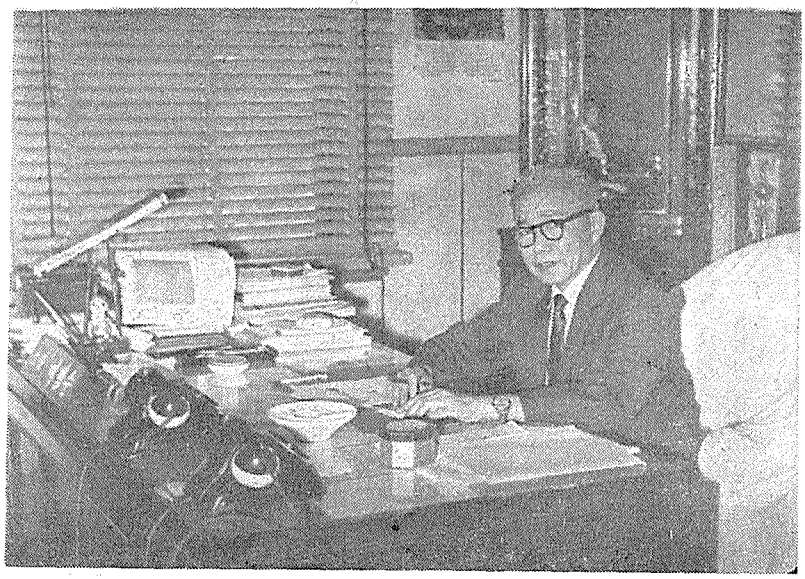
大統領賞에 빛나는 科學技術賞 受賞者



<榮譽로운 大統領賞 受賞者> 李 範 純 博 士

第3回 科學技術賞에 빛나는 榮譽의 大統領賞 受賞者 李範純博士를 面接하기 爲하여 國立工業研究所所長室을 찾았다. 李博士께서는 前에 顔面이 있어 반가히 맞아 주신다.

大統領賞 受賞者로 確定된 데에 대하여 祝賀의 人事를 드리자 李博士께서는 겸손하게 뜻하지 아니한 最高의 賞을 받게 되어 入賞候補者 여러분께 未安할 뿐아니라 또한 우리 國民生活의 發展에 보람있는 일을 하지 못한 데 對하여 賞을 받기가 부끄럽다 하신다.

本人이 前부터 알고 있었던 煙炭 gass 中毒解毒剤의 發明은 李博士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國民 日常生活에 가장 必要한 研究의 개가가 아니냐고 反問하니, 李博士께서는 글쎄요.

그 煙炭 gass 中毒 解毒剤가 "琥珀酸2소오다"인데 이미 臨床實驗結果 人體에 無害하며 外國의 解毒濟보다 藥効가 빠르다고 判明이 된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 普及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 일면 섭섭하나 그 普及은 醫師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의 할 일은 다한 것 같은 데"라고 말하신다.

李博士는 하루 속히 우리 나라가 後進性을 脫避하여야 하는 데 그러자면 産業界自體技術을 빨리 開發하여야 한다고 힘 있게 말하신다.

"지금 늦게나마 科學技術處 및 韓國科學技術研究所가 發足을 보게 된 것은 내가 알기에는 朴大統領의 英斷이었다"고 말하신다. 그러나 아직 科學技術에 對하여 國民의 認識이 不足하니 啓蒙宣傳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시며 總聯合會가 더욱 분발하여 앞장을 서라고 하신다.

李博士는 일찌기 서울工大 前身인 京城高工出身으로 첫敎職生活에서 後進을 養成輩出시키다가 1941年에 「國立工業研究所」로 자리를 옮긴뒤 63年부터 所長職位에 계신다. 趣味는 休日을 즐길줄 모르는 讀書家로 職務室을 떠나시면 書齋에서 日課를 보내게 되므로 夫人께서는 건강상 못마땅히 여긴다고 하신다. 家族으로는 따님 둘은 이미 出嫁시켰고 長男은 軍에 入隊하였고 三男一女를 가진 多福한 家庭이다. (서울 出身)

第3回 科學技術賞 受賞者

◇…4月21日 第3回 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施賞될 科學技術賞受賞者 候補選定을 爲…◇
◇…하여 지난 3月20日부터 各分科別 審査에 들어가 4月6日 全體審査會議에서 最…◇
◇…終 確定을 보게 된바 受賞者 人選 結果는 아래와 같다……◇

大統領賞

李 範 純 (60歲)
(國立工業研究所長 名譽 工學博士)

國立工業研究所長으로 在職中 오로지 國內工業技術의 育成을 爲하여 研究와 試驗을 通하여 國內工業技術發展에 劃期的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特히 專門分野인 化學工業技術에 全力하여 製紙 皮革 고무等 여러 分野에 指導反映되어 國內化學工業의 基礎를 形成하는데 그業績 및 功績이 至大하였음.

國務總理賞

李 基 寧 (54歲)
(前韓國生化學會長 理學博士)

우리나라 生化學界에 權威者의 一人으로서 多年間 生化學徒輩出에 功勞가 클뿐아니라 핵산에 關한 研究는 國際的으로 알려졌고 血液成分 정상 標準値에 對한 貢獻 및 微生物이나 연체動物의 分類를 容易케 하였고, 生物의 새로운 DNA發見等의 業績과 功績이 至大하였음.

科學技術處長官賞

韓 龜 東 (60歲)
(前大韓藥師會長)

우리 나라의 藥學界의 權威者로서 藥學保健官으로 우리 民族生活에 危害를 끼치는 各種 有害物質의 分析과 各地方 溫泉分析에 功勳을 세웠으며 서울大學校 敎授및 學長으로 數많은 藥學徒를 輩出시켜 藥學敎育에 功을 세우는等 多年 藥學에 關한 各種 機關團體의 중진으로서 活躍하여 藥學發展에 全力한 功績이 至大하였음.

本 賞

表 景 祚 (59歲)
(淑明女子師範大學 敎授)

韓國家政學의 科學的基礎의 樹立, 大韓家政學會의 設立, 家政學 敎科用 敎材 發刊, 一般家庭生活의 科學化, 不遇한 女性의 복지向上, 韓國家庭의 平和 유지와 또한 解放以後 20여성상을 오로지 韓國家政學의 先驅者로서 家政學 敎育및 發展을 爲하여 功勳을 세웠으며, 더우기 한국 家政學의 국제적진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業績이 至大하였음.

本 賞

愼 武 晠 (54歲)
(中央都市計劃委員, 雙龍洋灰 常務)

大單位 시멘트 工場 建設로써 建設技術面의 創意力을 發揮하였고, 特殊貨物의 運搬用貨車의 考案으로 建設界에 至大한 도움을 주었으며 精銳建築技術者로 後進을 養成하여 建築技術向上에 寄與하였을 뿐만 아니라 廳舍및 空港建築等 各種 主要建築에 있어 卓越한 指導力으로 直接計劃 設計施行함으로써 韓國現代建築技術의 飛躍的 發展에 貢獻한바 至大하였음.

本 賞

李 昌 福 (49歲)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敎授)

우리나라 樹木學및 植物分類學의 權威者로서 6.25 動亂으로 灰盡된 樹木脂葉標本과 標本館을 再建하여 6萬點內外의 植物標本의 蒐集과 標本의 鑑定整理를 完成하였고 植物資源의 開發, 참나무 類의 系統을 明白히 하였으며 樹木學및 植物學 分類學을 學問的으로 發展시키는데

努力을 하여 왔을뿐 아니라 農林業 增産에 寄與할수 있는 有用植物을 發見하여 學問과 實地에 貢獻한바 至大하였음.

振興賞(科學技術處長官賞)

徐 大 錫 (47歲)

(特許局審査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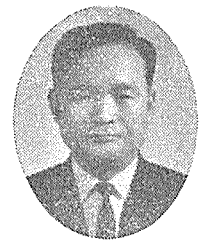
多年間 特許局 實務者로 在職하면서 特許 發明의 啓蒙을 爲하여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社會의 올바른 發明保護를 認識시키기 爲하여 不斷한 努力을 하였고 工業所有權 制度의 實情, 特許研究等 論文과 著書를 通하여 發明 의욕을 앙양시키는 등 이나라 특허 발명 分野에 貢獻과 業績이 至大하였음.

振興賞(會長賞)

朴 禧 善 (49歲)

(韓國주물기술협회副會長, 東興金屬 代表理事)

解放 以後 敎育界에 從事하면서 많은 技術者 養成및 輩出은 勿論 國內科學技術團體 育成과 發展等 協會團體間의 團結과 相互協助에 獻身的인 努力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結成에 많은 功을 들였으며 國內最初의 金屬製錬 및 강철 製錬에 酸素철가法을 實施하여 國內 金屬界 發展에 功績이 至大하였음.



振興賞(會長賞)

鄭 然 泰 (45歲)

(서울大學校師範大學敎授)

우리나라 物理學 敎育界의 權威者로서 科學敎育 一線에서 많은 物理敎師를 養成輩出하였고 科學敎育改善에 크게 이바지하여 國內는 물론, 全世界의 初, 中 高 및 大學의 科學敎育 全般에 걸친 改善運動을 일으킨 바 있어 科學敎育 改革에 功勞가 至大하였음.

振興賞(會長賞)

李 榮 來 (55歲)

(國立科學館科學部長)

動亂으로 파괴된 科學敎育施設을 全國的으로 全面 復舊하는 貢獻과 美國에서 國際建築을 研究導入하여 우리나라 科學敎育施設을 國際水準에 이르게 하였고 現國立科學館의 再建및 擴張事業, 移動科學制度 等 이 나라 科學敎育施設의 再建, 增築 改善하여 科學敎育發展에 業績및 功績이 至大하였음.

各分科別 審査委員과 候補人員및 被選者

分科別	審査委員	候補人員	被選者
1分科	朴東吉(委員長)·鞠採表·權寧大·金致榮·金漢台 崔相業·表景祚	4名	表景祚
2 〃	金浩植(委員長)·金憲奎·柳達永·李南信·李敏載 鄭文基·玄信圭	3 〃	李昌福
3 〃	洪貞模(委員長)·金在瑾·李範純·李 燦·李載坤 周利會·崔浩英	8 〃	李範純
4 〃	尹日重(委員長)·姜琮武·金海琳·柳 鍾·李均相 崔景烈·洪鵬羲	4 〃	愼武晠
5 〃	奏柄鎬(委員長)·羅世振·閔珖植·李春根·蔡禮錫 韓龜東·洪文和	6 〃	李基寧
6 〃	朴哲在(委員長)·閔壽泓·沈昇澤·安東赫·李濟九 全相運	9 〃	鄭然泰·朴禧善 李榮來·徐大錫
全體審査委員會	安東赫(委員長) 外 41名	34名	10 名